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다





오감만족 체험이 농촌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체험교육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은 흔히들 '산 교육'이라고도 하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농촌이야말로 몸이 기억하는 최고의 경험이 아닐까요?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서, 한 번 더 가공하고,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이야말로
다양한 가치와 즐거움을 품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로 즐거움까지 느낀다면
그보다 더 좋은 농촌융복합산업이 또 있을까요?

CONTENTS

SECTION 1.

꿈&농업

06 기획특집

- 농촌융복합산업,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다!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 농촌융복합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다_상(上)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 전남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책임집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 충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다,
농촌융복합산업 씽크탱크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16 팜테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지름길

18 글로벌농업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네덜란드 케어팜(Care-Farm)

22 농산업 트렌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소비자와 거리 좁히는 농가들

SECTION 2.

미래&농업인

26 전남명인

해남 동국장
한안자 명인

28 팜&마케팅

해남 풀내음농장
윤도하·윤성하 대표

32 청년이 온다

해남 황영감농원
황성수·김송민 대표

36 남도 여기!

고즈넉한 가을에 취하다
순천 1박 2일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42 농기원 기고

조동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44 귀농정보

광양시·여수시 귀농귀촌 정책

46 농업인 건강정보

겨울철 ‘하우스증’, 미리 예방하세요!

48 농기술정보 1

겨울철 대비, 월동준비 철저하게 끝내기

50 농기술정보 2

치사율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및 긴급대응 수칙

52 JARES NEWS

58 남도축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정찬수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서종분
편집기획 김덕현 배현우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0-07
진행·제작 명진씨앤피(02-2164-3000)

농업의 미래는 이제 생산과 가공, 유통을 넘어
체험·여행까지 융복합산업화로 소비의 폭이 점점
다양화되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사업분야까지 더욱 폭넓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SECTION

1



꿈&농업

농산물 생산과 기타 유무형 자원을 2차 제조·가공하고, 3차 유통판매와 체험관광, 치유교육까지 이르는 농촌융복합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1차원적인 생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위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농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06 기획특집

농촌융복합산업,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다!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농촌융복합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다_상(上)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책임집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충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다, 농촌융복합산업 씽크탱크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16 팜테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지름길

18 글로벌농업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네덜란드 케어팜(Care-Farm)

22 농산업 트렌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소비자와 거리 좁히는 농가들

농촌융복합산업,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과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자료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내부적으로는 중소농, 고령농 등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농촌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IT, BT, NT 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에 대한 기대도 많아져 본격적으로 사업화되었다.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는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3차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환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농촌융복합산업이 주는 기대효과는 어떨까? 결과적으로 농업인은 농산물판매와 더불어 2·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표 1 | 농촌융복합산업 주요 지원 분야

기관	분야	지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지원	· 농촌자원,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산업 사업자간 연계를 통해 특화하여 농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시설지원, 운영지원 등 종합적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컨설팅	교육 유통마케팅 역량강화 기초 : 상품기획 심화 : 판로개척 상품성 향상 디자인, 네이밍, 콘텐츠 개발 등 판로개척·마케팅 유통채널 입점 유통채널 정보제공 온·오프 입점지원 유통마케팅 역량강화 온·오프 라인 판매 및 판촉 연계 지원 홍보·마케팅 국내 전시회, 홈쇼핑 진출 전략적 홍보 등
		수출지원
		· 해외시장조사·분석을 통한 닷넷 바이어 발굴 및 제품 기획, 마케팅 전략 발굴, 테스트마케팅 지원 등 · 제품경쟁력 강화, 해외 유통채널 입점 및 판촉 등
한국농어촌공사	마케팅	·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 지원- 우수제품 인지도 제고 및 TV홈쇼핑 판매방송 지원, 입점지원 · 6차산업화 촉진, 6차산업 기업 및 제품 홍보 경진대회 추진
농식품도매펀드	금융	· 정부와 민간이 결합하여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에 투자
농촌진흥청	시설지원 및 컨설팅	·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강화 등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교육	· 창업, 경영, 유통, 마케팅, 농촌개발, 6차산업 등에 대한 교육 및 국외 연수 지원
농촌진흥청	체험관광	· 농촌교육농장 조성 지원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재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 전문가 컨설팅, 보험, 홍보 등 ※ 농촌교육농장 운영을 위한 교육, 경영, 홍보, 마케팅 등 포괄적인 컨설팅 추진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공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11개 기관은 6차산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 교육, 가공 등 인프라 시설지원, 경영 컨설팅, 수출지원, R&D, 체험관광 등 9개 분야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별 지원 내용과 지원사업은 <표 1> 과 같다.

각 도별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각 도와 세종시에 6차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6차산업 활성화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6차산업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6차산업사업자 인증제 등 6차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6차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정책수립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등으로 그 역할이 다양하다.

6차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6차



표 2 | 6차산업지원센터의 역할

분야	주요역할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 현장코칭 및 전문교육 · 우수사례 및 제품 발굴(대형마트 내 안테나숍 운영)
6차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 6차산업 실태조사 · 지역 제조·가공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단위 정책수립 지원	· 지자체 기획역량 강화 ·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 관련·유관기관 간 정책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 농촌체험·관광 기반 구축 ·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산업사업자 인증제도이다. 6차산업 경영체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의 심사를 통해 6차산업사업자 인증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도 지원센터에서는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향후 지원정책 방향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경영구조에 기인한 마케팅 등 판로개척이나 시설에 필요한 금융문제, 상품개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6차산업 경영체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조성 등 일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6차산업 창업희망자, 현재 6차산업 경영자 등 경영체의 현재 상태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및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6차산업 경영체는 현 단계의 기업가 지향성의 수준진단을 통해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등 부족한 분야에 대한 수준별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6차산업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농업인에게는 6차산업 경영주로서의 필요한 기업가 지향성에 대한 수준 진단과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사전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우선 지원하고 그 후에 관련된 가공시설 및 가공기계와 같은 6차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촌융복합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다

농업을 본격적인 산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업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사업화를 위해 어떻게 경영해야 효율성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다. 가장 먼저 농가 소득을 조사하고, 작물을 선택하고, 사업화와 운영방법 그리고 농산업 컨설팅 등 여러 가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의 농산업경영팀과 농촌자원팀의 주요업무 성과를 소개한다.

글·사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체계를 수립하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산업경영팀은 전남 농업인의 저비용·고소득 경영 실현을 위해 농업경영 분야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팀에서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그 중 핵심적인 업무는 ‘농산물소득조사’이며, 이는 농업경영체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목별 자료수집, 수익성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깨동무컨설팅’,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통해 도내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분야에서는 ‘주요 과





수의 조성비, '아열대 및 소면적작목 경영성과분석', '신품종 신기술 적용 농식품 시장테스트', '생산자 패널 및 특화품목 구매특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여 돈 버는 농업경영 기술을 연구·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활동 및 성과

농산물소득조사

농산물소득조사는 국가승인통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농산업경영팀에서는 전남의 농산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2020년 48작목 749호를 도광역화로 추진하고 있다. 분석자료는 농가의 영농의사결정 지원, 영농손실보상, 영농자금 대출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책담당자에게는 농업정책수립, 연구직 및 지도직에게는 농업연구 지도 등의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그 가치가 크다.

어깨동무컨설팅

'어깨동무컨설팅'은 농업인이 직접 작성한 경영기록데이터로 작목별

로 9~12명의 농업인과 경영, 재배, 토양, 병해충, 유통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컨설팅이다. '어깨동무컨설팅'은 다른 컨설팅과 달리 농업인 스스로 농장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또한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도 지원하고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컨설팅의 확산을 위해 도입한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농가의 경영기록장 기장을 장려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그 해에 전라남도 최우수 신규시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은 민선 6기 당시 이낙연 도지사가 전남의 농가 수익증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약사업이다. 민선 7기에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1개 작목(벼, 고구마, 콩, 녹두, 참깨, 딸기, 배추, 단감 등)의 우수 경영모델을 완성하여 10a 기준 평균 노동력 절감 39%, 소득 40%를 올리는 데 기여하였고, 실천 경영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민평가단의 인정을 받아 2019년에 전라남도 우수시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도에는 생산

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으로 홍화, 잎들깨, 무화과 등 5개 작목의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남지역 주요 작목을 재배하는 농



업인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우수 경영모델을 개발·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 다른 차원의 농산업을 도모하다

농촌자원팀은 농업·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창업 및 융복합화 촉진,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가치 확산, 농촌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농작업 안전관리 및 고령농업인 활력 증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가공교육, 창업, 마케팅 교육 및 시제품개발, 창업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안전한 농산물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치유농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농산물 가공 및 향토음식 상품화, 치유농업육성,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노인 생산적 여가활동 등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관광의 새로운 대안, 농촌교육농장 지원

농촌교육농장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전반

에 걸친 활동을 다회차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단순 농촌체험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농촌관광 및 학습의 대안적 모델이다.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양성 기초, 심화 과정을 추진하여 농장주를 육성하고, 전남은 현재 60개 농장이 운영 중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마케팅 역량강화, 치유형 프로그램 비대면 체험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장주의 교수능력 향상과 학교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에는 17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40개 농장이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 전문가를 연계하여 농장 현장 컨설팅에서부터, 품질인증 대비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가족단위의 소규모, 코로나 청정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 증가로 농촌관광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교육농장에서도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 우수한 농장을 클린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치유농업이 농산업을의 새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치유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진 농촌교육농장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음식연구회 운영

전남의 전통·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존, 전수 등을 통해 전남의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 조직된 연구회로 각 시군 음식연구회의 임원들로 구성하여 63명이 활동 중이다. 다양한 박람회에 지역별 향토음식, 쌀을 활용한 디저트 등 전시, 시군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쌀음식 발굴 레시피 자료화로 전수에 힘쓰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상) _ 농산업경영팀 · 농촌자원팀

자원경영과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유일하게 연구직과 지도직이 협업하여 경영분야, 농촌자원분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부서이다. 농업경영과 농촌자원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지만,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분야이다.

자원경영과는 농산업경영팀과 농촌자원팀, 농업정보 3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팀이 합심하여 농업경영 기술을 연구·지도하고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전략을 개발해 도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요업무

농산업경영팀

-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
- 우수농업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
- 어깨동무 컨설팅

농촌자원팀

-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 전통·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존, 전수



전남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책임집니다!

농산물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면 농산물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늘어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정에서부터 가공 기술, 가공 설비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때 지역별로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면 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으며 판로 또한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다.

글·사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장성군 단풍로 226-22
주요 가공품 사과, 감, 쌀, 새싹보리, 새싹삼, 블루베리, 꾸지뽕 등
생 산 품 목 음료, 과일잼, 조청, 과립, 건과 등
주요 설비 착즙기, 추출·농축라인, 과립기, 건조기 등
문 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061-390-7186



영광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481
주요 가공품 비트, 아로니아, 천년초, 모시잎
생 산 품 목 비트 분말, 아로니아 분말, 천년초즙, 천년초 분말 등
주요 설비 제습건조기, 분쇄기, 당익기, 저온추출기, 등
문 의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061-350-4837



무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무안군 청계면 청운로 358
주요 가공품 양파, 고구마, 아로니아, 쌀, 무화과 등
생 산 품 목 누룽지, 말랭이, 잼, 아로니아분말, 청국장 등
주요 설비 과립기, 당익기, 포장기, 혼합기, 건조기 등
문 의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450-4052



나주시 농산물 제2가공센터 (설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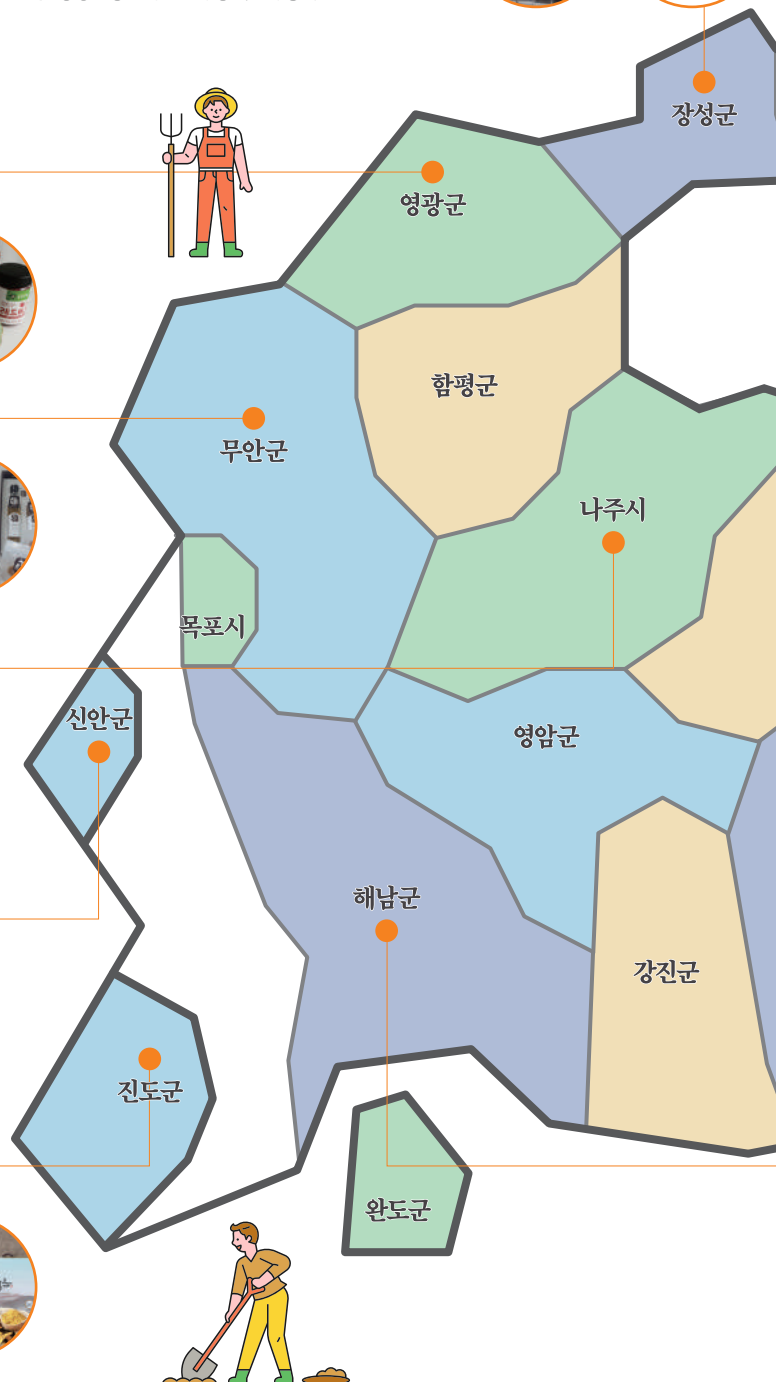
주 소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
주요 가공품 배, 블루베리, 플럼코트, 쌀, 팥, 콩, 호박, 버섯 등
생 산 품 목 음료류, HMR
문 의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 061-339-7392

신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중)

주 소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698
주요 가공품 마늘, 대파, 시금치, 잡곡, 배, 무화과
생 산 품 목 대파분말, 즙, 차, 잼, 식초 등
주요 설비 착즙기, 여과기, 추출·농축라인, 과립기 등
문 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240-4131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진도군 진도읍 고작길 5-3
주요 가공품 구기자, 표고버섯, 비파, 모링가, 블루베리, 쌀 등
생 산 품 목 음료, 차, 분말, 건조 등
주요 설비 건조기, 착즙기, 마이크로여과기, 추출·농축라인 등
문 의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경제마케팅과 061-544-9924





담양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96-2
주요 가공품 딸기, 블루베리, 쌀 등
생산 품목 잼류, 아이스크림류, 건조분말 등
주요 설비 농축기, 젤라또기, 동결건조기 등
문의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061-380-3469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연계한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가공 창업 시 초기 자본과 가공기술, 역량 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기술, 식품 위생 관련 법규 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공동시설을 활용해 시제품 개발 및 판매 활동을 벌여 상품성 테스트, 창업실무 역량을 배양한 후 개별 창업할 수 있어 창업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전라남도에는 시·군별로 12개 종합가공센터(나주, 신안은 설계 및 설치 중)가 운영 중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산물의 가공 및 제조를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 소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
주요 가공품 산수유, 매실, 블루베리, 헛개, 표고버섯 등
생산 품목 음료류, 잼류, 분말 등
주요 설비 착즙기, 건조기, 과립기, 포장기 등
문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61-780-2587



광양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주 소 광양시 왕바위길 138-29
주요 가공품 매실, 배, 생강, 표고버섯, 감, 아로니아 등
생산 품목 매실당절임 및 농축액, 생강편강, 버섯분말 등
주요 설비 분쇄기, 건조기, 착즙기, 농축기, 포장기 등
문의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061-797-3327



순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주 소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28
주요 가공품 아로니아, 모링가, 백향과, 오디, 배, 감 등
생산 품목 음료, 잼, 조청, 분말, 건조, 습식 반찬류 등
주요 설비 착즙기, 농축기, 과립기, 포장기, 동결건조기 등
문의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061-749-3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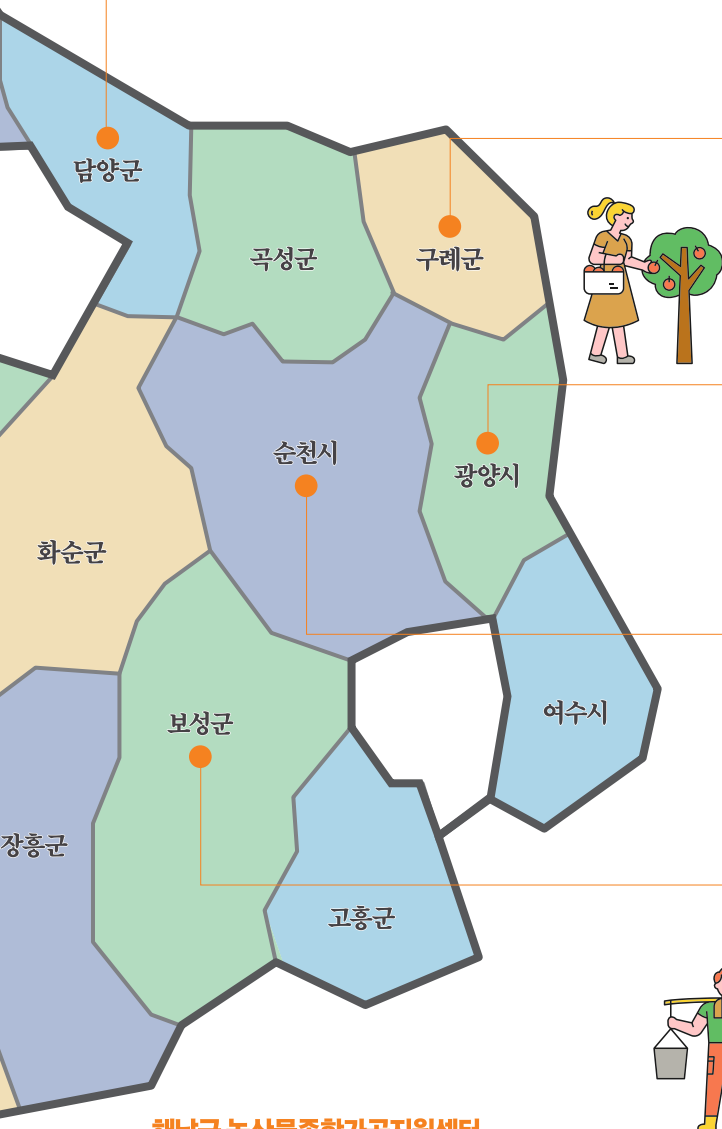
보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주 소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751
주요 가공품 키위, 베리류, 복숭아, 사과, 배, 토마토, 쌀, 감자 등
생산 품목 주스, 액상차, 말랭이, 조청, 과일젤라또 등
주요 설비 착즙기, 파쇄기, 당화탱크, 동결건조기, 젤라또 제조기 등
문의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850-5721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주 소 해남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길 18
주요 가공품 아로니아, 블루베리, 밤호박, 부추, 표고, 황칠 등
생산 품목 음료, 잼, 조청, 분말, 건조, 과립 등
주요 설비 착즙기, 추출·농축라인, 제환기, 과립기, 건조기 등
문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61-535-9881



충남의 미래 100년을 그린다 농촌융복합산업 씽크탱크,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심점 역할을 하는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이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고 있다.

글·사진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이제 농업은 재래식 농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6차산업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 및 사업과 연계해 오색찬란한 융합을 꾀하고 있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이하 '6차산업센터')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충남지역 농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남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대상 3, 우수 4, 장려 1)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내기까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센터의 노력은 계속된다.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하는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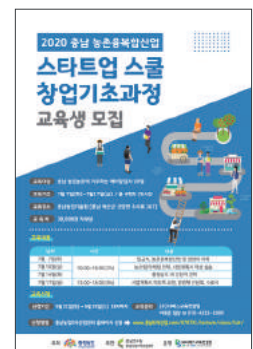
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확산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을 지속 시행 중이다. 또한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학 합동 워크숍 운용, 전문가 포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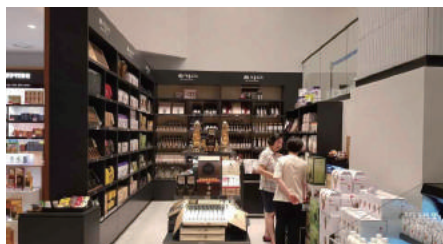
와 우수사례집, 제품 카탈로그 등 출판물을 발간하며 지속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 지원으로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상담 및 현장 코칭은 2019년 한 해 동안 870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분야별 코칭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제작·배포하므로 지역사회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 내 별도의 제품 판매장(7개소)을 운영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

6차산업센터는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고령농·여성농·청년농 등 소규모 경영체를 우선 지원으로 하여 현재까지 185개소 이상(2019년 기준)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증 사업자의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과 직결되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사업자를 위한 세부 액션플랜으로 ‘창업 스타트업 스킴 운영’이 있다.

농업 경영체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인적 부문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창업 후 3~4년 차의 성장 절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는 물론 전통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육성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 ‘홍보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농가 체험·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실무 지식을 가르쳐주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에 지역 농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네트워킹과 유통채널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올해 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경영체별 전략상품을 발굴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펼치며 판로 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섰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상품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전문업체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번 프로그램은 초기 사업 경영체(Start up)의 유통전략(원가, 가격, 플레이스 등)을 수립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향후 중견 경영체(Scale up)가 됐을 경우 유통망 재구축 및 자사 내 마케팅 컨트롤 기능이 가능하도록 자생력을 확보하는 두 트랙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로 대형유통업체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생산제품과 향토제품이 널리 알려지도록 탄탄한 지원을 뒷받침하며 침체된 농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농업을 생각하는 전남연구원

최근 열린 ‘2019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한마당 큰잔치’에는 110여 개 경영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홍보전을 펼쳤다. 전남의 농업 경영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이번 행사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그려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농촌융복합산업대학’ 또한 수백 명의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며 시제품 제작 성과는 물론 각종 인증 및 수상실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농촌융복합산업의 디딤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6차산업센터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전남의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가 현실화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지름길

치유농장(Care 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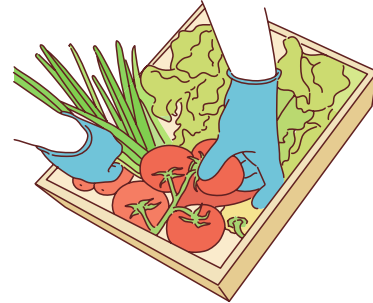
치유농장이란 농촌 경관이나 농업활동을 활용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신적·육체적 재활을 돕는 농장으로 사회적 농업의 하나이다. 일반 농업과 달리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 이러한 치유농장은 이용자를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 농가 소득증대에 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치유농장은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1,000여 개소의 치유농장이 운영 중이며, 연간 2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치유농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청은 치유농장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치유농업사 등 자격 제대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경우 현재 600개 소에 불과한 치유농장은 3,000여 개로 증가하고 이용고객도 현재의 30만 명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은 일반 농촌체험농장과 달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장 중에서 학교 교육의 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농장을 선정해 2017년부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은 인증성과 인증패를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의 MOU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청소년 단체 등에 우선 홍보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90개소이며, 전남에는 40개소이다.

참고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촌교육농장 <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z/psz/contentMain.ps?menuId=PS03965>
 사답법인 한국농촌교육농장 협회 http://happyfarm.cafe24.com/bbs/bbs/content.php?co_id=certification1



농업의 경쟁력 시대, 제품의 생산에만 주력하던 시대는 끝났다. 농업은 이제 첨단 기술과 유통,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분야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 관련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출처 농촌진흥청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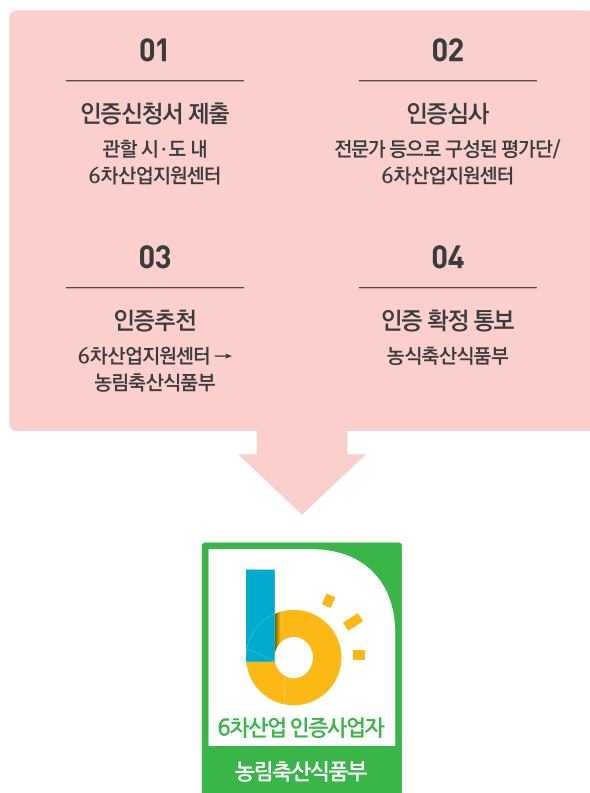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국내산 상품을 원재료로 융복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6차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한다. 인증사업자 마크를 획득하면 각종 융자를 비롯해 현장 컨설팅, 판로 구축,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10,000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에도 289개 사업자가 6차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신청방법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인증절차



문의 6차산업지원센터 www.6차산업.com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 www.전남6차산업.com



지리적표시 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의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인 표시를 등록하여 보호하고 그로 인한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청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그 대상이다. 다만 그 품목의 생산·가공자가 1인일 경우에는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실시한다.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네덜란드 케어팜

Care-farm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 네덜란드는 한국 면적의 4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다. 그나마도 영토의 3분의 1이 간척지인데 어떻게 농업 강국이 된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농촌 환경과 농장을 활용한 6차산업에 있다. 특히 네덜란드 선진농업의 대명사인 ‘케어팜(Care Farm)’은 치유농장(Care Farming) 또는 사회적 농장(Social Farm)으로 불리며 농업 분야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자료 케어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2020. 4), 지속가능한 한국형 케어팜 모델 제안(2019)



2010년 의식 있는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케어팜 연맹은 3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 후 통과한 케어팜에 한해 ‘튤립 모양의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케어팜 선진국 네덜란드의 농업 네트워크

네덜란드 농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기존 농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결합한 케어팜 모델과 첨단 대형 시설이 결합된 스마트팜 모델이다. 매우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이어진 네덜란드의 농업 네트워크는 케어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긴요하게 작용했다.

네덜란드 케어팜은 1995년 50여 호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현재까지 약 1,400여 호(2019년 기준)가 운영 중이다. 사회 지원법 체계 하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의료지원기관의 형태를 띤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운영되는 케어팜은 지역의 기후, 문화, 인구분포, 주요 참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한다. 오랜 시간 케어팜 모델

을 연구하며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바흐닝언(Wageningen) 대학은 치유농업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케어팜 연맹, 녹색치유센터 등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케어팜 인증제’를 도입하여 공인된 케어팜 재배작물이 대형 유통마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한다.

네덜란드 케어팜은 ‘치료중심’의 정부주도형으로 제도적(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제도, 청소년보호법 등) 지원과 운영방식(보건복지부 지원 및 평가 관리)면에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6차산업의 결정체 ‘케어팜’

케어팜은 농사와 치료가 결합된 개념으로 보건복지와 농업 관련 정부 부처, 관련 지자체, 환자, 의사, 농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다기능적 치유농업 환경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을 공식화할 만큼 해당 분야의 연구와 보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케어팜이 6차산업의 하나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케어팜의 역사는 EU가 탄생하면서부터다. 농사만 짓고 먹고살기 힘든 영세 농장들이 새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농촌체험과 농업 활동에 ‘치유’의 기능을 더하면서 케어팜은 복지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네덜란드 치유농업은 크게 치유, 고용, 교육 분야로 나뉘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6차산업을 이끌어간다. 케어팜은 사회복지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운영되지만, 농업의 생산과 치유기능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달리 한다. 농장에선 경우에 따라 여러 형태의 수익 창출 사업(숙박, 농산물 판매, 공간 대여 등)을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는 케어팜이 경제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케어팜이 사회복지의 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더 큰 범주에서 네덜란드의 치유농장은 모든 국민의 쉼터이기도 하다.

복지의 영역을 농업에 접목한 치유 중심의 케어팜

치유 중심의 네덜란드 케어팜 유형은 활동형/돌봄형 데이케어, 테라피·코칭 프로그램 제공, 재활(약물·알코올), 장기 거주

형(24시간, 주말) 케어 등으로 다양하다. 케어팜은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자폐, 약물중독자, 노숙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머물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농장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도 인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일례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케어팜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요양시설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닌, 적절한 노동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치유의 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활동으로 성취감과 사회성을 유



다양한 형태의 네덜란드 케어팜



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케어팜의 가치가 더해진다. 중독자 재활을 돕는 린덴호프오픈가든(Lindenhoff Open Tuin)이 대표적이다. 케어팜에서는 여물 주기, 잡초 뽑기, 작물 재배 등 기본적인 농장 일 외에도 미술, 공예, 목공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케어팜이 노인 복지에만 초점을 두진 않는다는 사실이다. 케어팜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사회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6차산업의 관점에서 인적·물적 차원의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파라다이스 케어팜은 2박 3일 주말 거주형(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9천 마리의 닭과 돼지 200마리, 소 30마리를 사육하는 것은 물론 온실을 갖춘 1ha의 밭에서 비트 등 각종 채소와 과일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이렇게 재배된 채소와 과일들은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인 에코플라자(EKOPLAZA)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다. 네덜란드 비넨달(Veenendaal) 지역에 있는 도심형 케어팜인 익후버

생산과 유통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케어팜

네덜란드 케어팜의 특별함은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시너

익후버 농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치즈, 계란술, 채소 패키지)





네덜란드 품질인증 농장현황

(Eekhoeve) 농장도 별도로 농산물숍(직판장)과 카페를 운영하는데 케어와 재배생산 활동을 5:5 정도로 병행한다.

케어팜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의 회원사들은 생산 가공한 식품들을 상호 부조 형태로 판매해서 수익을 나누기도 하며 텃밭농업, 양봉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난민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물적 수익원을 창출해내고 있다. 실제로 케어팜 수익의 상당 부분은 케어 서비스 지원에서 나오지만, 농산물 판매와 가공, 레스토랑 등의 매출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케어팜을 위한 준비

케어팜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농업

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6차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대상은 일반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서 차별화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나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의 특성상 지원은 꼭 필요한 분야인데, 경제적인 부분이 모두 이용자의 몫이라면 ‘치유’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케어팜 운영에 관심이 있는 농업 관계자라면 네덜란드와 같은 실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시설의 정도, 에너지 코스트 관리, 장애인 고용, 직무 현황 등 한국형 케어팜 도입 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장점은 바로 촘촘한 시스템이다. 케어팜 네트워크, 농장 ↔ 정부, 농장 ↔ 판매처, 농장 ↔ 복지기관, 농장 ↔ 의료기관, 농장 ↔ 지역협회·공동체의 관계로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탄탄한 케어팜 운영을 지지하고 있다. 더불어 케어팜이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품질관리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의 필요성은 한국에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더불어 케어팜 운영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관련 전문 교육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소비자와 거리 좁히는 농가들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서비스를 연계한 안테나숍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생산-가공-서비스를 결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가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농장, 치유농장, 지역축제 등을 통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1차, 2차 산업까지 활성화하 것은 물론이고 생산-가공-서비스를 연계한 안테나숍의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글 김용환 칼럼니스트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생산-가공-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안테나숍이 지역별로 들어서며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유통 및 홍보에 취약한 영세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안테나숍’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공간이자 일종의 테스트 마켓이다.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유통망으로서 현재 전국에서 27개의 안테나숍이 운영 중이다.

안테나숍은 지역의 우수상품을 소비자들이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주로 소비자 왕래가 잦은 지역에 스톱인숍(Shop-In-Shop)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되며 농민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공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특산물로 가공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생산된 농산물 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선보이거나 지역에 따라 꿀벌 체험, 고추장 담그기, 약초를 이용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농민들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체험농장에서 한발 나아간 교육농장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농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단순한 체험농장에서 나아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체험농장과 교육농장은 둘 다 농업과 농촌의 모든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체험농장이 재미 위주**의 단순 채집이나 만들기 체험에 그친다면 **교육농장은 재미와 교육중심으로 교과 연계형 지식을 습득**한다. 김장으로 예를 들자면, 함께 김치를 담그는 것이 체험이라면 땅에 씨앗을 뿌려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렇게 키운 배추로 김치를 담가 새로운 경험과 함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들은 교과과정과 연계하거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체적으로 교육대상에게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과 함께 교육 관광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



세분화·전문화되며 발전하는 치유농업

힐링과 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치유농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 또는 관련활동을 통해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일반 농업과 달리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

치유농업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에선 1,000여 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치매노인과 자폐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재활 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치유농업을 도입한 농가는 국내에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적으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주로 치유가 필요한 도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행복감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진청은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치유농업 활동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자(대사성 만성질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들어서는 고양시가 관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거나 서산시농업기술센터가 가사와 육아에 지친 여성을 대상으로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대상을 세분화·전문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역축제로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

지역축제를 개최하며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단위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창 청보리밭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제주 가파도 청보리축제 등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민간업체 위탁이 아닌 민간 협력으로 축제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3차산업인 축제의 성공을 지역 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해 1, 2차산업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창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청보리밭 이외에도 해바라기와 메밀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에는 즉석 가공식품 판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자전거 대여사업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민박과 보리밥 판매로 수익을 다변화했다. 화천에서는 산천어를 테마로 하는 산천어회, 산천어 도시락 등의 먹을거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직접 기른 농산물 활용한 식당 카페 늘어나

최근 농촌에서는 직접 기른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천 감자빵’으로 대히트를 친 ‘카페 감자밭’이다. 강원 로컬푸드의 대표 아이템인 감자를 활용한 춘천 감자빵은 아버지가 농사지는 ‘로즈감자’ 품종을 활용해 자녀가 레시피를 개발한 사례로 강원도 대표 명물로 자리 잡았다. 감자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운영하고 있던 카페 감자밭도 강원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고 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과일, 채소를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거나 카페 공간을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 카페나 레스토랑은 농민들이 생산한 원물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



SECTION

2



미래&농업인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부진 각오로 한걸음씩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남의 농업인들이
곧 우리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요?

- | | |
|-----------|------------------------|
| 26 전남명인 | 해남 동국장 한안자 명인 |
| 28 팜&마케팅 | 해남 풀내음농장 윤도하·윤성하 대표 |
| 32 청년이 온다 | 해남 황영감농원 황성수·김송민 대표 |
| 36 남도 여기! | 고즈넉한 가을에 취하다, 순천 1박 2일 |

진하고 정갈하게 전통의 맛을 간직한 살아있는 우리 장을 빛다

한안자 명인은 조선시대 왕후의
가문으로 이름난 청주 한씨
집안과 윤선도의 명맥이 흐르는 해
남 윤씨 집안, 명문대가인 밀양
박씨 종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 입맛에 꼭 맞는 전통장을
널리 알리고 있다.

글 김형일 사진 농업회사법인 귀빈(주)

대한민국 식품명인 40호

한안자 명인

50여 년째 장을 담그고 있는 한안자 명인은 '동국장(東國醬)' 제조로 이름난 명인이다. 인수대비의 친정인 청주 사직촌 한씨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한 재원이다. 그런 명인이 우리 장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5년 결혼을 하며 밀양 박씨 공간공파 종택으로 오고 나서부터였다. 특히 시어머니인 윤락순 씨가 명인에게 밀양 박씨 종가의 전통과 함께 해남 윤씨 집안의 장류 제조기법을 전수해 주면서 그녀의 장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명인이 만드는 장은 ‘동국장(東國醬)’이다.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에 따르면 ‘동쪽 나라 사람들은 장(醬)을 잘 만든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동국장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명인이 만드는 장은 간장을 내거나 끓이지 않고도 은근한 맛을 자랑하는 생장(生醬)이다.** 조선시대 유중림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나타난 장의 모습과 닮아있으며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우리 장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에 그 이름이 꼭 맞다 하겠다.

3년 이상 잘 발효된 동국장은 양념간장 같은 독특한 맛이 난다. 밥에 생장을 올려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조미료를 대신해 음식에 맛을 더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나물을 무치거나 국과 찌개를 끓일 때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요리의 드레싱 재료로도 손색이 없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만찬의 메뉴로 ‘동국장을 곁들인 가자미 구이’가 올라 더욱 유명해졌다.

명인은 1992년부터 전통 장류의 보급을 위해 식품 회사를 설립하고 백화점 납품을 시작해 우리 전통장류를 브랜드화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40호로 지정되었다. 장류를 활용한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체험의 장을 마련해 우리 음식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동국장 만들기

1. 잘 고른 대두를 5~6시간 삶고 3시간쯤 뜸을 들여서 찢는다.
2. 벽돌이나 야구공 크기의 메주로 곱게 문질러 빻는다.
3. 멧방석에 널었다 짚동구리에 널었다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널었다 짚을 깔고 짚동구리에 널었다 하며 노랑 곰팡이가 나도록 10월, 11월, 12월 발효시킨다.
4. 1주일쯤 말려서 곰팡이를 털고 씻어 적당한 크기의 항아리에 담는다.
5. 소금 20%정도를 넣어 소금물을 만들고 펄펄 끓여서 항아리에 부어 소독하고 항아리 입구를 고운 삼베로 덮고 묶어 1월, 2월, 3월 그대로 두면 검정 장이 우러나온다.
6.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용수를 넣어 안에 고인 것은 장으로 밖의 걸쭉한 것은 된장 용도로 쓰는 끓이지 않은 생장이고 맛이 독특하다.
7. 맛있는 간장, 된장과 섞어 쓰면 조미료 대용도 된다.

귀빈식품 동국장

업 체 명	농업회사법인 귀빈(주)
대표자명	박홍령(명인 후계자)
주 소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119-8
T E L	061-532-2416



한안자 명인의 성공 노하우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온다

질 좋은 재료를 선별하여 장을 담근다. 지역에 계약 재배를 통해 선별한 알이 굵은 대두와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장을 맥반석 항아리에서 숙성시킨다.

표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다

정확한 배합비율, 숙성 온도, 숙성 기간을 지켜 제품을 생산하고 용기의 규격화 등을 통해 전제 제품의 표준화를 완성했다. 또한 3·5·10년 등 숙성 기간에 따른 제품을 출시하며 그에 따른 레시피를 개발해 전통장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꾸준히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다

일찍부터 농림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목포대 등과의 공동연구에 투자해 과학적으로 맛의 본질을 탐구했다. 또한 전통장 활용 방안에 투자하여 계장, 조개젓, 어리굴젓, 자매젓 등 200여 종의 전통식품을 개발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풀내음농장 윤도하·윤성하 대표

해남군 남단, 백포리 숲속에는 '자연 속 키즈카페'라고 불리는 풀내음농장이 있다. 펜션과 함께 운영되는 이 교육농장에는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좋아할 콘텐츠가 가득하다. 도토리를 줌과 동물들과 교감하며 널따란 트램펄린에서 마음껏 뛰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글 백미희 동영상 홍승진 사진 이정도

펜션과 교육농장이 결합한 복합체험공간

풀내음농장이 설립된 것은 2011년도의 일이다. 시작은 펜션부터였다. 목조주택 짓는 일을 하던 형 윤도하 대표는 형제들과 함께 풀내음펜션을 지었다.

“저희가 9남매인데 저와 막내인 윤성하 대표를 포함해 4형제가 해남에 살고 있습니다. 풀내음펜션과 농장은 저희 형제 4명이 직접 만든 공간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살면서 목조주택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손으로,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간 공간입니다.”

구상단계부터 한 달 정도의 장기간 투숙이 가능한 ‘힐링캠프’ 개념으로 펜션을 지었다. 투숙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건물도 독채로 지었다. 단순한 숙박업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위치도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했다. 그래서 풀내음농장과 펜션은 해남군 백포리의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윤성하 대표가 합류한 것은 2018년부터다. 펜션 운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풀내음펜션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농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윤성하 대표는 합류 전부터 풀내음농장을 ‘교육농장’과 ‘치유농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교육을 들었다. 지난해부터는 농장의 홍보를 위해 윤성하 대표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있기도 했다. 유튜브 활동 또한 관련 교육을 듣고 난 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전남농업 유튜브 채널과 연결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 설치
- ② 앱 실행 후 사각형 테두리 안에 QR코드가 보이도록 위치
- ③ 인식된 결과 화면 이동





교육농장과 펜션이 함께 운영되며 풀내음농장의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를 포용하게 되었다. 농장 주변에는 자연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느긋한 산책이 가능하다. 독립형 목조주택에는 가족 단위로 숙박을 할 수 있다. 주택 이외에도 카라반이 4대 있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농작물 수확 체험도 가능하다. 동물농장과 대형 트램펄린, 실외수영장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도 잔뜩 마련되어 있다. 펜션에 숙박하면 대부분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가족 단위 숙박객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농장에는 카페도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어른들



은 커피 한잔을 즐기며 자연풍광을 감상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도토리 줍고 동물과 교감하는 자연 속 키즈카페

교육농장의 주요 교육 콘텐츠는 ‘도토리’이다. 펜션을 조성할 때 주변에 도토리나무가 많아서 일부러 남겨놓고 콘텐츠로 활용 중이다. ‘소풍 가는 날’이라는 콘셉트로 도토리 탐방로에서 도토리도 줍고 도토리묵도 함께 만들어본다. 하우스에서 작물 수확 체험을 하거나 동물농장에서 계란을 줍기도 한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시설은 트램펄린이다. 방방 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동물과 교감하기의 인기도 트램펄린에 못지않다. 농장에서 살고 있는 동물은 염소, 양, 칠면조, 닭 등이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같이 순화되어 잘 되어서 사람들을 무척 좋아한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면 줄줄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손을 내밀면 머리를 ‘뽕’하고 부딪히며 인사를 건넨다. 아이들이 다양한 시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 속의 ‘키즈카페’를 보는 듯하다. 실제로 교육농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하 대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는 그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생명과 교감하는 활동,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풀내음농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육 아닐까요?”

사실 올해는 형제에게 무척 힘든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농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실망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도약과 재정비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먼저 펜션은 다양한 체험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한 달 살기’의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교육농장 역시 현재는 대상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있기에 추후에는 어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예정이다. ∞



ZOOM IN

자연 속 키즈카페, 풀내음농원

풀내음농장에는 폭이 30m에 이르는 대형 트램펄린이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이외에도 풀장, 동물농장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조물과 콘텐츠가 가득하다.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윤성하 대표는 자연 속 키즈카페를 형상화해 산속에 구현해낸 것이라 설명한다.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

풀내음농장의 동물농장에는 양과 염소, 닭, 칠면조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 닭을 제외하면 각각 2~3마리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순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을 좋아한다. 손만 내밀어도 머리를 부딪치며 인사를 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만 졸졸 쫓아다녀 쉽게 교감할 수 있다.

숙박과 자연체험을 동시에

펜션과 교육농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풀내음농장이 가진 경쟁력 중 하나다. 숙박객은 풀내음농장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농장이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성인들까지 포용하는 치유농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배농부의 TIP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것

처음 ‘교육농장’이라는 개념에 동물농장을 포함했을 때 동물의 수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동물이 몇 마리인지’보다는 ‘동물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으로 농장을 채우다

교육농장을 운영하기 전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진국의 사례도 다양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내용이 반영되었기에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농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시도가 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농장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는 이 시간을 발전과 정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펜션은 교육과 힐링, 관광까지 포함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생각이고, 교육농장 또한 성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풀내음농장

C E O 윤도하·윤성하 대표

설립연월 2011년 1월

홈페이지 www.pulneeum.net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dfE4uli5DCPulGpKWfKopw/featured

T E L 010-5000-0066

E-MAIL nongs@kakao.com



신품종 ‘태추단감’으로 단감의 제2의 전성기를 꿈꾸다

해남 황영감농원 황성수·김송민 대표



땅끝마을 해남에는 단감의 여왕으로 불리는 ‘태추단감’의 국내 최대 생산지가 있다. 황영감농원은 20여 년이 넘는 감 농사 경험을 가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달고 아삭아삭해서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이 신품종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황성수·김송민 대표 부부를 만나보았다.

글 백미희 사진 홍승진

달고 아삭한 태추단감 아세요?

태추단감, 아직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신품종 단감은 배처럼 아삭거리는 식감과 높은 당도로 유명하다. 해남에는 태추단감의 최대 생산지가 있다. 귀농 6년 차가 된 황성수·김송민 대표부부는 감 농사만 23년 째인 아버지와 함께 태추단감을 생산, 판매하며 단감의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예전에는 감이 선호도가 높은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젊은층이 점점 찾지 않으면서 가격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오랜 시간 감 농사를 지은 아버님이 단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감을 찾아보자고 하셨고, 태추단감이라는 신품종 감나무를 심게 되었어요.” 황성수 대표는 감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기 위해 한국농수산대를 졸업했다. 김송민 대표와는 대학 재학 중 만났으며, 둘은 6년 전 결혼하며 함께 해남에 정착하게 되었다.

황성수 대표가 농장에 합류하며 후계영농인 자격으로 지원을 받아 땅을 구입했고, 약 5만㎡ 부지의 땅을 개간해서 태추단감 묘목을 심었다. 2017년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현재는 해를 거듭하며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황성수 대표가 태추단감의 생산을 담당한다면 김송민 대표는 판매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귀농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는 농사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확을 시작하고 보니 태추단감의 인지도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맛이 워낙 좋아서 직거래로 판매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에 ‘제가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김송민 대표가 온라인 직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 판매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라’카페로 정했다. 2018년도에 20톤, 2019년도 50톤, 올해는 100톤 정도로 수확량이 늘어났지만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구매하시는 것 같았는데 구매자들이 카페에 좋은 후기를 남기니까 그걸 보고 구매



자가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해마다 수확량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직판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에 판매처를 늘렸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엄 온라인 마켓인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쿠팡’과 벤더사를 통해 다양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하루 발주량이 4배 정도 늘어나 10월 중순까지 직접 판매는 시도 못 하고 있다고.

우리의 목표는 태추단감의 대중화

태추단감은 배 맛이 나는 감으로 과육이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당도도 워낙 높아 기호성이 좋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감농가에서는 태추단감을 ‘단감의 여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추단감의 주 고객층은 아기엄마들이 많다. 연하고 당도가 높아 아이들이 먹기 좋은 과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30~50대 고객들이 직접 구매하고, 선물 받



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가 약한데도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찾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태추단감을 먹어본 소비자들은 “이렇게 연하고 아삭한 감이 있냐”며 재구매가 이어졌다고.

하지만 저장성이 떨어지고 연하다 보니 무르기도 쉽다. 이 때문에 수확 과정이나 포장에도 신경 써야 한다. 보통 감은 망 포장을 하지 않지만 태추단감은 사과나 배처럼 알알이 하나씩 망포장을 해서 박스에 담는다. 황영감농원에서는 배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단 박스도 잘 쓰지 않는다.

김송민 대표는 태추단감을 키우는 데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감 농사를 23년 동안 지은 시아버지 덕분에 성공적으로 신품종을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것.

여기에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김송민 대표의 관리 능력이 전량 완판이라는 성과를 내는 데 한몫했다. “저는 평소에 농산물 구매를 자주 해요. 농라카페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 인기 판매자의 제품을 순위별로 주문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어떤 분야든 판매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비자가 되어 보니까 받았을 때 비품이 섞여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 ‘내가 농사지은 작물이 아까워서’ 정량을 넣고 비품을 끼워서 추가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상품



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황영감농원에서는 선별에 특히 신경을 쓴다. 비품은 짝 모아서 단골에게 50%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반 소비자는 흠 없이 좋은 상품만 받으니 기분이 좋고, 단골들은 맛있는 상품을 반값으로 구매하니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최대 목표는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거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었지만 현재 납품처인 ‘마켓컬리’나 ‘쿠팡’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판장에 나가는 수수료만 택배비로 돌려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품질이나 포장 등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지만요.”

황성수·김송민 대표 부부는 앞으로 태추단감의 대중화에 힘쓰는 동시에 마을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주변 농가의 농산물을 함께 모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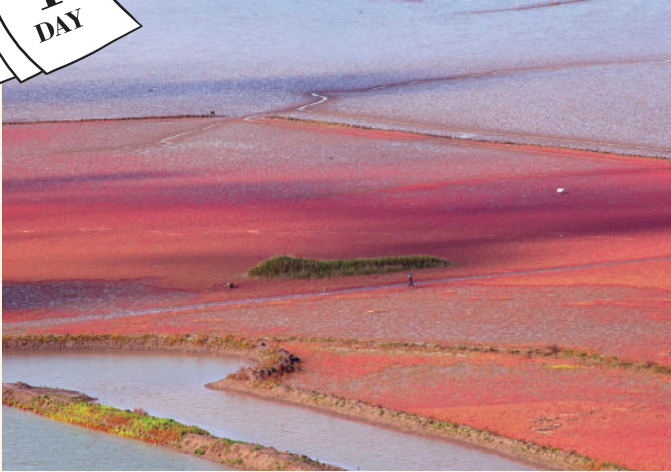
더불어 황영감농원을 필두로 태추단감 농가는 주로 전남에 몰려 있다. 태추단감 농가의 상생과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 전남의 태추단감 농가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묶어 2차 가공품 등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언젠가는 태추단감을 통해 단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남 황영감 황성수·
김송민 대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가을에 취하다

순천 1박 2일



순천만



순천만

첫째날, 순천의 가을을 걷다

순천여행의 첫 번째 일정은 세계 최고의 연안습지인 순천만 습지에서 시작해 보자. 순천만에서 발견되는 철새는 총 230여 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류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더불어 가을에 순천만습지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갈대밭이다. 가을이면 은빛 고운 갈대꽃이 장관을 이루는 갈대밭은 무진교를 지나면 만날 수 있다. 갈대숲 사이로 난 탐방로를 걷고 있으면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해질 녘에 순천만습지를 찾았다면 용산전망대에 올라보자. 황금빛

으로 물든 S자 물길과 붉은 칠면초 군락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순천만습지의 입장권을 구매했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까지 둘러볼 수 있다.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 도사동 일대 정원부지 112만㎡에는 나무 505종 79만 주와 꽃 113종 315만 본이 식재되어, 정갈하게 가꾸진 나무와 꽃이 몸과 마음을 물들인다.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가꾸던 전통 정원을 비롯해 세계적 정원 디

10:00

순천만습지

문의	061-749-6074
관람시간	08:00~일몰시간(매표 17:00 마감)
매표(입장)시간	일몰시간에 의해 조정
홈페이지	scbay.suncheon.go.kr/intro.jsp
이용요금	일반 8,000원/청소년·군인·중고생 6,000원/어린이 4,000원
주소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12:00

순천만국가정원

문의	1577-2013
관람시간	08:00~18:00(매표 17:00 마감)
매표(입장)시간	일몰시간에 의해 조정
홈페이지	scbay.suncheon.go.kr/intro.jsp
이용요금	일반 8,000원/청소년·군인·중고생 6,000원/어린이 4,000원 ※ 순천만습지 입장권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14:00

맛집 추천!

신화정	전남 순천시 구암길 26 순천한상 고급형(정원상)
향토정	전남 순천시 남신월4길 13-26 순천한상 일반형(남도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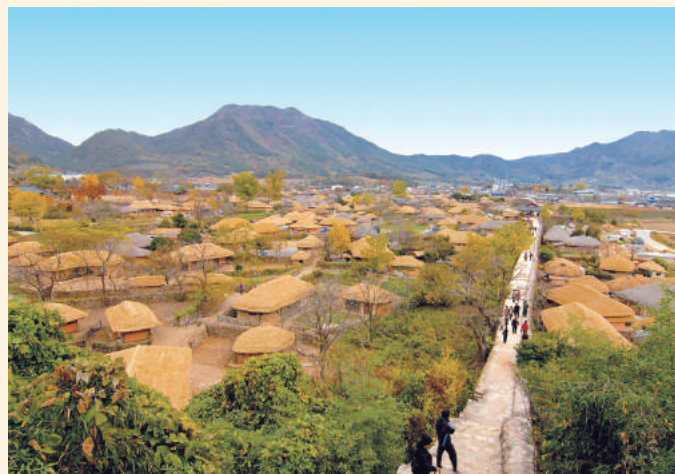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순천으로 떠나보자. 순천만습지를 방문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갈대숲 탐방로를 걸어 보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통가옥,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드라마 세트장은 물론이고 남도요리를 만끽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를 소개한다.

글 권지혜 사진 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자이너 찰스젠스가 디자인한 호수정원이 있는 테마정원, 11개국의 세계정원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점심식사는 순천의 대표음식으로 차려진 순천한상 한정식을 추천한다. '순천한상'은 순천시 한정식 브랜드로, 풍부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순천의 천혜 자연을 이용하여 계절별로 순천이 인정하는 재료와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제철음식으로 풍성한 남도의 정갈하게 잘 차려진 한상차림을 맛볼 수 있다.

식사 후에는 600년 전 민초들의 삶을 오롯이 간직한 낙안읍성으로 떠나보자. 성곽, 관아 건물과 소담스러운 초가, 고즈넉한 돌담길 등의 소박한 조선시대의 마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물론이고, 120세대 3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살아있는 전통 역사마을이다.

13:30

낙안읍성

문의	061-749-8831
관람시간	12월~1월 09:00~17:00 2월~4월, 11월 09:00~18:00 5월~10월 08:30~18:30
홈페이지	suncheon.go.kr/nagan
이용요금	일반 4,000원/청소년·군인·중고생 2,500원/어린이 1,500원
주소	전남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송광사



송광사

둘째날, 순천의 맛과 멋을 담다

둘째날에는 유구한 역사를 품은 힐링 사찰 **송광사**로 떠나보자. 이곳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명소다. 책으로만 접하던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과 국보 제43호 고려고종제서,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 보물 제1366호 화엄탱화 등 6,000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직접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나무숲과 아름답리 삼나무, 편백나무가 울창한 산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어, 세상 시

름 잇고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의 경험을 선사한다.

점심식사는 건강한 치유밥상을 체험할 수 있는 **농가맛집 덕동원**을 추천한다. 조계산 승보사찰 송광사와 주암호 인근에 있는 덕동원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에는 다양한 가공품과 친환경특산품이 진열되어 있어 구매도 가능하다. 식사 이후에는 샌드아트 공연관람·체험이 가

○
10:00

송광사

문의	061-755-0107
관람시간	동계 07:00~18:00 하계 06:00~19:00
홈페이지	www.songgwangsa.org
이용요금	성인 3,000원/청소년·군인·초중고생 2,000원/영유아 무료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12:00

농가맛집!

덕동원	전남 순천시 송광면 덕동길 70 061-755-0009, www.sdfood.co.kr 덕동원자연한상, 대경이된장전골정식, 찌장아찌삼겹수육한상, 매실비빔면
-----	--



○
14:00

미듬팜

문의	061-755-0879, 010-9050-045
홈페이지	www.xn--xy1bq7k21u.kr
주소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614-6, 신촌2길 2-5



미듬팜



순천드라마촬영장

능한 미듬팜(체험농장)을 방문해 보자. 샌드아트는 빛이 들어 오는 라이트박스 위에 모래를 뿌리고 지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뜻한다. 샌드아트 이외에도 동물과 교감하기, 곤충 체험 등 상시 농촌체험 활동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순천여행의 마지막은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는 드라마촬영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1960~1980대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하

고 있는 순천드라마촬영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사랑과 야망>, <그 해 여름>, <님은 먼 곳에>, <제빵왕 김탁구> 등 많은 걸작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세트장으로 사용된 공간이다. 50·60세대에게는 그리운 향수를, 청소년들에게는 1960~1980년대 달동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17:00

순천드라마촬영장

문의	061-749-4003
관람시간	09:00~18:00(매주 17:00 마감)
이용요금	성인 3,000원/청소년·군인·중고생 2,000원/어린이 1,000원
주소	전남 순천시 비례골길 24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산업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삶의 터전인 전남에서 더욱 밝게 빛을 내도록 앞선 생각,
더 나은 기술로 농부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도록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 | | | |
|----|------------|-----------------------------------|
| 42 | 농기원 기고 | 조동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
| 44 | 귀농정보 | 광양시·여수시 귀농귀촌 정책 |
| 46 | 농업인 건강정보 | 겨울철 ‘하우스증’, 미리 예방하세요! |
| 48 | 농기술정보 1 | 겨울철 대비, 월동준비 철저하게 끝내기 |
| 50 | 농기술정보 2 | 치사율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및 긴급대응 수칙 |
| 52 | JARES NEWS | |
| 58 | 남도축제 | |

농촌융복합산업화로 농가소득 높아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조동호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남 농가의 농업소득이 2018년 1,190만 원에서 2019년 884만 원으로 무려 26% 감소했다.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는 건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이처럼 감소세가 크고 지속되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고,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면 대체 소비할 수 있는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게 되어, 농산물 공급 과잉 시에는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농외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가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농가당 농외소득은 2018년 1,394만 원에서 2019년 1,583만 원으로 무려 13.6%가 증가하였다. 농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농가소득은 2018년 3,948만 원에서 2019년 3,932만 원으로 0.4% 감소에 그친 것이다.

그렇다면 농외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농가들이 1차 농산물 생산에 머물지 않고 농촌 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안 자은도에서 마늘, 양파,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청푸름농장(대표 김용우)에서는 1차 농산물 생산으로는 충분한 소득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양파즙, 된장 등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섬 자원과 직접 재배한 작물을 체험과 연계하고, 텃밭에서 먹거리를 직접 준비하여 요리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달콤한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나무늘보’라는 펜션도 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업생산비는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농가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농업소득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농외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농업소득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만약 너무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여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풍부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음식,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등 융복합농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융·복합화하여 농외소득을 높여나가야 하며,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과 같은 소재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생산과 연계를 할 수 있어 농업소득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에서는 그동안 농촌의 융복합산업화를 위해 6차산업 모델양성 사업, 가공제품 개발지원, 체험농장 및 농촌교육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집중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육성·확산시켜 나가고,

농가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장 사업, 치유농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경영 활동은 경영규모 확장 가능성에 따라 농장운영 방향과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경영이 가능한 농가는 농사기술에 ICT 등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규모 확대가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들은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해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 융복합산업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여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1차 농산물 생산시스템이 갖춰진 기반 위에 2, 3차산업을 융복합화 해야 하며, 원가 절감과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내 제품을 구매하고, 농장을 찾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집중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육성·확산시켜 나가고, 농가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가늠 뛰는 귀농, 가늠 흐트한 귀촌

제2의 삶은 도농복합도시 광양에서!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 ★

지원대상	도시지역 1년 이상 지속 거주,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 미경과, 만 65세 이하 세대주 등
사 업 량	상·하반기 배정금액 범위 내
사 업 비	창업자금 3억 원 한도, 주택자금 7,500만 원 한도
지원내용	창업자금(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등), 주택자금(주택 구입·신축·증개축)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지원대상	광양시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사 업 량	5명
사 업 비	500만 원
지원내용	소모성 농자재(최대 100만 원), 교육·컨설팅(최대 200만 원), 홍보·마케팅(최대 200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

운영규모	6개소(다압면)
임 대 료	월 최대 15만 원
이용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년 이하
문 의 처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정팀 (061-797-3540)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예비 귀농·귀촌인
사 업 량	매년 40명 내외
교육기간	4~10월
교육내용	귀농 컨설팅, 영농설계 요령, 작물별 재배기술 교육 등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지원대상	광양시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선도농가
사 업 비	720만 원
지원내용	귀농인(월 최대 80만 원, 최대 3개월), 선도농가(월 최대 40만 원, 최대 3개월)

귀농인 모임체 육성 지원

지원대상	관내 귀농·귀촌인
사 업 비	1,500만 원
지원내용	환경정화, 동아리 소모임, 워크숍, 견학, 귀농인 한마음 대회 등 활동 지원
지원내용	소모성 농자재(최대 100만 원), 교육·컨설팅(최대 200만 원), 홍보·마케팅(최대 200만 원)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관내 귀농·귀촌인
사 업 비	500만 원
지원내용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운영 지원

기타사항

종합안내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정팀 ☎ 061-797-3540, 2883
교육안내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팀 ☎ 061-797-3323





안정적인 귀농, 성공적인 귀촌

귀농·귀촌은 꿈과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귀농인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사 업 량	15세대
사 업 비	5,400만 원(보조 100%)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360만 원(30만 원×12개월)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사 업 량	2세대
사 업 비	1,000만 원(보조 100%)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리모델링, 화장실 개량 등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로 지원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사 업 량	4세대
사 업 비	6,000만 원(보조 : 70%, 자담 : 30%)
지원내용	묘목 및 종묘 구입,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농업생산기반 마련에 세대당 1,500만 원 지원

귀농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사 업 량	2세대
사 업 비	5,000만 원(보조 70%, 자담 30%)
교육내용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포장재, 유통장비, 디자인 개발 등에 세대당 2,500만 원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하는 자
응자조건	농업창업, 주택구입 신축 : 연리 2%(변동금리) *5년 거주 10년 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창업 3억 원, 주택구입·신축 7,500만 원
지원내용	농지구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 등 농업창업, 주택마련 등 / 연 2회(상/하반기) 심사 후 선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아파트 단지 거주자 제외)
사 업 량	26세대
사 업 비	2,600만 원(보조 100%)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100만원을 마을주민 화합행사 비용으로 지원

귀농인 유희농지 개간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단독세대 가능)
사 업 량	5세대
사 업 비	1,000만 원(보조 70%, 자담 30%)
지원내용	귀농인이 유희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료 등 개간비를 농가당 200만 원 이하 지원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대상	관내 농업인
교육기간	3월~9월(기간중 14회) / 60시간(14회)
신청방법	연 2회(상/하반기) 심사 후 선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교육기간	1개소
신청방법	500만 원
지원내용	월 120만 원(신규농업인 80, 선도농가 40) 한도 내 3~11월 기간 중 5개월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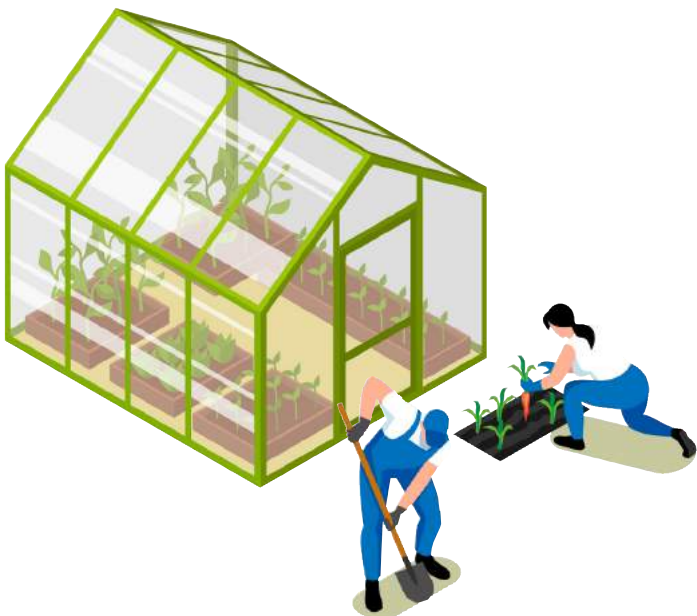
기타사항

종합안내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61-659-4452-4454
교육안내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팀 ☎ 061-659-5542-5543



겨울철 영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하우스 농사는 날씨가 추울 때 환기 부족에 따른 분진 발생이 많아져 농업인 건강을 해치기 쉽다. 특히 과채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의 유해 작업환경으로는 고온다습, 환기부족에 따른 분진, 급격한 바깥기온과의 온도차, 한밤중이나 새벽시간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속에서의 출하 조정 작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 계절, '하우스증'을 미리 예방해보자.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하우스증’이란 비닐하우스 재배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건강장애 증후군으로 요통, 견통, 잦은 감기, 현기증, 구토증, 쉽게 피로함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하우스증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온다습하고 폐쇄된 작업환경,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노동, 더운 환경에 적응하려던 생체가 차가운 외부환경과의 사이에서 생리학적 모순을 일으키기 쉬운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우스증은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 바깥 기온과 하우스 안의 온도차가 심할 때 발생하기 쉬우며,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노동이 증상을 더욱 가중시킨다.

하우스증 예방을 위한 농작업 개선 방안

하우스 시설구조 개선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의 유형은 터널형 또는 아치형이 대부분인데, 터널형은 재래식의 소형 비닐하우스로 공간이 좁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아치형은 좀 더 큰 비닐하우스로 공간이 넓고 작업환경이 다소 개선된 하우스로 46.4%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해야 할 하우스가 많다. 하우스 내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면 일차적으로 하우스 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온도·습도나 유해가스를 완충할 수 있도록 하며, 환풍기 설치, 환기구의 확대 등을 통해 실내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하우스 작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급격한 온도차에 수시로 접하게 되어 바이올리듬이 깨져 체온조절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와의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휴게실을 설치하여 10~15분간 휴식을 통해 온도에 적응한 후 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휴게실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와 하우스 내 온도의 중간정도 온도가 바람직하다.

시설재배양식 개선

고랑 폭을 최소한 70cm 정도는 확보하고 하우스 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보조기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확작업의 경우 운반작업 수단과 운반적재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랑의 길이를 결정한다. 긴 이랑의 길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 운반 수단을 사륜운반차 등 작업부담이 적게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작업시 보다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다단재배를 권장한다. 또한 작물의 줄기를 유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열매를 따거나 관리작업을 할 때 쭈그리거나 높이 위로 향하는 자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



- 하우스증 원인 고온, 다습, 무풍(환기부족), 급격한 외부와의 온도차, 한밤중이나 새벽 작업 등
- 하우스증 증상 요통, 어깨통증, 감기에 자주 걸림, 현기증, 구토증, 쉽게 피로함 등

하우스증 예방지침

- ①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체온조절능력 저하 예방: 비닐하우스 안과 밖의 온도차를 줄이는 중간휴식공간 설치
- ② 작업시간: 하루 5시간 이상 하우스 안에서 일하지 않고, 맑은 공기 흡입
- ③ 탈수증을 막기 위해 물 섭취
- ④ 하우스에 온도계를 매달아 놓고 자신의 작업온도 점검
- ⑤ 작업복은 방수가 되면서 조금 추울 정도로 입기
- ⑥ 하우스 밖으로 나올 때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찬 물수건으로 얼굴 닦기
- ⑦ 하우스 밖에 나와서는 손·손목 및 목·어깨운동 마사지하기
- ⑧ 통로 바닥의 평면화, 운반기기·보조도구의 사용 등을 통해 노동부담 경감

중간휴식실의 구비조건

- ① 환기, 난방조절로 바깥공기와 하우스 내의 중간온도 유지
- ② 휴게실, 간이 운동시설, 세면·샤워시설, 화장실
- ③ 냉·온수공급 및 간이 취사시설
- ④ 기타 출하조정 작업대, 문화시설 등

겨울철 대비, 월동준비 철저하게 끝내기

수확이 끝나고 초겨울에 입성하는 11월, 농업인들은 겨울철 대비 월동준비로 더욱 바빠진다. 각 품목별 월동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자. 바쁜 가운데 주위를 잘 둘러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더욱 풍요로운 다음 해를 기약해보자.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국립식량과학원



노지작물 월동준비

벼

2021년도에 사용할 벼씨는 지역의 장려품종 중에서 수매 품종과 논의 토양 상태에 따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을 확보해야 한다. 벼 보급종은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자. 신품종으로 바뀌 재배하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하고, 자가 채종 종자 및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종자 신청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7



이 잘 빠지도록 하고, 습해를 받은 포장은 겨울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 동사하거나 말라 죽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를 철저히 하여 서릿발 피해 및 습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늦게 파종한 지역은 퇴비나 볏짚 등 유기물을 피복해주며, 복토를 충분히 하여 안전 월동을 도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도에 농사를 위해 종자를 미리 생각해 두자. 종자로 사용할 경우는 탈곡·조제 시 이형립이나 헝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탈곡 후 충분히 건조한 종자를 저온에서 저장하고, 감자·고구마 등은 저장온도는 물론 알맞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꼭 건조 후 밀폐하여 관리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에 따라 우량종자를 준비토록 하며 약제 및 전용비료 등 각종 자재는 미리 준비한다.

종자 신청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7

밭작물

맥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이므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해 두는 것이 좋다. 논의 끝머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내고 배수구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배수구로 물



과수

본격적으로 가을이 끝나는 시기, 과원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 주거나 태워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고, 관수시설은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의 물을 완전히 빼주고 작업도구는 한곳에 모아 둔다. 토양표면에 덮여 있는 반사필름, 부직포 등을 걷어 수관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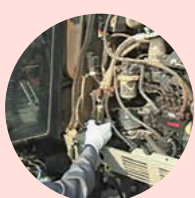
동해 대비 과원관리

- 배수가 불량한 과원은 물 빠짐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 나무의 수세를 보고 거름 주는 시기 및 양을 조절
- 찢어지거나 상처 입은 가지는 도포제로 바르거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 줌
- 동해 우려지역은 나무 주간부에 백색 수성페인트 도포 및 신문지, 짚 등으로 피복

* 지면에서 100cm 높이까지 피복재로 보호

농기계 보관 및 관리

- 농기계의 내·외관을 깨끗이 닦은 후 기름칠을 하고 각종 볼트 및 너트를 점검하며 클러치 및 레버는 풀림 상태로 보관
- 고장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 등에 의뢰하여 수리
-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빼주고 디젤엔진은 연료를 가득 채워둬야 하며 점화플러그, 기화기, 공기청정기 등을 깨끗이 청소
- 배터리는 분리시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1~2개월에 한 번씩 방전 여부 확인
- 냉각수 부동액을 혼합하는 기계는 부동액과 물을 4:6 비율로 혼합하고 엔진 오일과 필터를 교환
- 농기계는 전용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창고가 없는 경우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눈·비를 맞지 않게 보관



시설하우스 월동준비

시설하우스 관리는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점검과 보온연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11월에 갑자기 한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온해 줄 수 있도록 보온덮개나 부직포, 비닐 등을 포장 주위에 준비하여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예방, 피복한 비닐은 흙으로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월동준비를 한다.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천창 개폐에 신경을 써서 생육저하 및 생리장해 현상을 방지한다. 흐린 날이나 습한 날은 주는 물 양을 줄이고,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두었다가 물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사용한다. 토양조건, 식물상태, 햇빛 강도에 따라 주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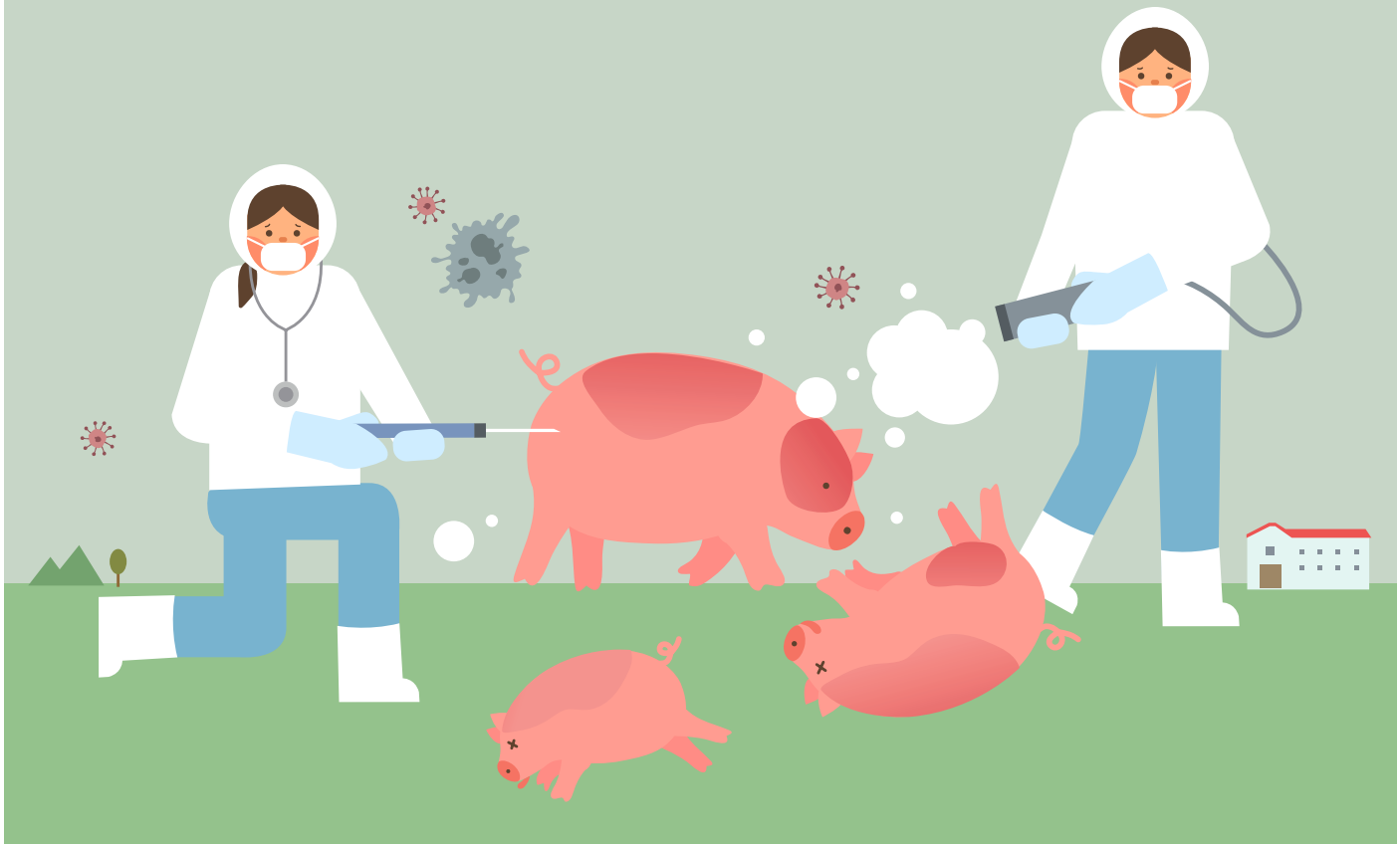
이밖에도 강풍에 대비해 고정 끈을 튼튼히 매우고, 강풍이 불 때는 환기창을 모두 닫아 완전히 밀폐시켜 비닐과 골재가 밀착되도록 하고, 폭설에 대비해 하우스 동 사이는 1.5m 이상 확보하고 제설장비를 미리 준비한다.

난방에 의한 아황산가스 피해도 주의한다. 아황산가스 피해를 받으면 발생당일 잎 뒷면이 수침상으로 변하고 2~5일 정도 지나면 잎이 탈색, 변색되어 낙엽이 진다. 난방기 버너부분의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기가스 연통의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사율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및 긴급대응 수칙

최근 중국과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 예방과 국내 방역 추진사항 등의 관리 대책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농업인이 지켜야 할 예방대책 및 긴급 행동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출처 농촌진흥청



전염력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사육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파된 적이 없지만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통해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최고(급성형) 100%에 이르며 전염력이 강한데다 전파가 빨라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건강한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침, 분비물, 오줌, 분변 등과 직접 접촉할 때, 환경에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오염된 차량, 사료, 도구 등 매개물에 간접 접촉할 때 그리고 감염된 진드기(Ornithodoros spp.)가 돼지를 흡혈할 때 전파된다.

감염 이후 4~21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돼지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폐사하거나 (심급성형) 42℃ 이상의 고열과 귀·복부·뒷다리의 청색증이 보이며, 고름 또는 점액 모양의 눈곱과 콧물 등의 증상(급성형)을 앓게 된다. 증상을 보인 이후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발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침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과 관절 통증에 시달리다 찢뚫거림 증상이 나타나거나(보통형), 발육 불량과 피부 궤양(만성형) 등을 보인다. 만성형에 걸린 돼지도 몇 달 후에 결국 폐사하고, 한번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살처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전방위적 조기 대응 및 대책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내 유입 봉쇄와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 발생 시 조기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출입국관리 등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농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매년 가상 방역훈련을 하고,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양돈 농가는 질병 확산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감염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상 증상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자 및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여 왔다.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 방역 등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양돈농가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비상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모두가 적극 대응할 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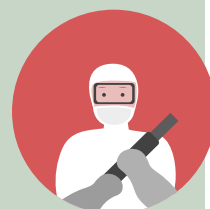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방지 및 조기근절 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 농가에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비상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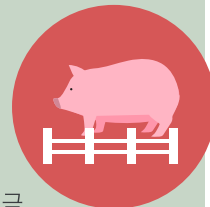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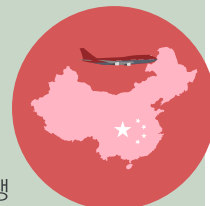
돼지에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 급여 금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한 후에 급여한다.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이나 방문 삼가기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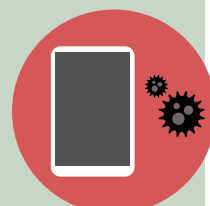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

양돈 농가·양돈 산업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 숙지 및 이상 상태 파악시 즉시 신고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한다.



출입국 시 반드시 검역본부 신고 1670-2870
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즉각 신고 1588-9060/4060

JARES NEWS



**전남농업기술원,
화훼류 신제품 지역업체에 통상 실시**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화훼류 신제품에 대해 국제화훼종묘(함평군 소재)와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상계약은 정원용 장미(그랜드 마치 등 6종), 절화용 장미(마루미노, 스위트미노), 수국(그린아리, 핑크아리)에 대해 진행했다. 그랜드 마치, 프린스 가든 등 정원용 장미 6품종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어 재계약되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정원용 장미 6종은 5,400주, 절화용 장미 2종은 3만 1,000주, 수국 2종은 8만 6,000주가 생산,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장미, 수국은 로열티가 지불되는 대표 품목으로 전남도에서 육성된 품종이 도내 농가에 보급되었을 경우 각각 8억 원(5ha 점유시), 3.5억 원(4ha 점유시)의 로열티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원용 장미와 수국은 지역 내 여러 시군에서 관광과 치유농업을 합친 경관 조성용 상품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훼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원예연구소 이재진 연구사(061-330-2544)



**전남농업기술원,
노랑녹두 파랑세상푸드(주)에 통상 실시**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노랑녹두 신제품 삼향, 진황에 대해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전남도는 3년간 6,000kg(진황 3,000kg, 삼향 3,000kg) 종자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1,124만 원의 실시료를 받게 된다.

삼향과 진황은 기존 품종과 비교했을 때 수량이 5~14% 높으며 중·대립종으로 전분과 숙주나물 생산 품질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황은 기계를 이용한 일시수확 품종으로 농가의 수확 노력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파랑세상푸드(주) 이상훈 대표는 “기존 녹색 계통의 녹두와 달리 노랑색 종피를 가지고 있어 숙주나물 생산 뿐만 아니라 종실 상품화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국망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의 식량작물연구소 최진실 연구사(061-330-2533)

전남농업기술원, 7개 지역 업체에 기술특허 유상 이전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도 연구개발 특허기술에 대해 아이티컨버전(주) 등 7개 업체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특허는 이미지 기반 작물 생육정보 자동계측 시스템, 군락에서 열화상 이미지를 통한 작물 기관별 온도식별시스템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장치, 농작물 재배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모니터링 방법, 스마트팜 온실 환기창의 개도를 자동제어시스템, A/S가 용이한 스마트팜 시스템, 양액 농도 조절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양액 공급 방



법 및 장치, 발효 찻잎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동안이도다(상표), bugle(상표)에 관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기업체들은 이번 기술특허 협약을 통해 전남농업의 발전과 함께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장서우 연구사(061-330-2573)



전남농업기술원 - (사)울금식품가공업단, 강향 소비확대 '맞손'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지역 특산물인 강향(울금) 소비확대를 위해 진도군 소재 (사)울금식품가공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재배 기술 및 기능성 식품소재와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사)울금식품가공업단에서는 구축되어있는 가공시설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활용 소비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진도 특화작목인 강향은 기능성 성분인 커큐민이 1~3% 함유되어 있으며 항암, 항염, 간기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진도울금'으로 제95호 지리적표시등록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사)울금식품가공업단(단장 박시우)은 2013년 270여 명의 재배농가와 5개의 가공·유통업체가 회원으로 사단법인을 등록하여 재배, 가공, 유통, 마케팅을 통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석 연구사(061-330-2513)



전남농업기술원, 신품종 3종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참다래 신품종 해금, 비파 신품종 조아비, 진왕에 대해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역 업체인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해금, 보성군), 여수향금비파랜드(조아비·진왕, 여수시), 완도군농업기술센터(조아비, 완도군), 살리고 주식회사(조아비·진왕, 완도군)에서 참여했다.

참다래 '해금'은 당도, 산도, 식감, 풍미가 좋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종으로 2008년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165ha가 재배되고 있다. 이번 3차 통상 실시를 통해 향후 7년간 추가로 약 1만 8,000주의 모주가 판매되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파 '진왕'은 저장성이 좋고 '조아비'는 조생종 품종으로 완도, 장흥에서 37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생과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등 기능성 가공식품 원료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완도,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4,200주의 모주가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온난한 해양성 기후의 강점을 가진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농촌지원과 김민수 주무관(061-330-2743)

전남농업기술원, 식용곤충 수출로 농가소득 견인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사육·가공기술을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오엠오가 갈색거저리 분말을 미국에 수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주)오엠오(대표 허누림)는 미국 Manna Food(대표 Luke Wright)와 연간 3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수출량은 분말 70kg으로 약 3,000달러에 달한다.

수출이 이뤄지기까지 전남농업기술원은 갈색거저리 사육기술로 성충 산란통 이동 간격, 보조사료 종류와 가공기술, 열풍건조에 의한 피



부재생과 해독작용이 높은 프롤린, 글리신 함량이 높고 가공에 적합한 분말 크기 등 다양한 기술 정보를 (주)오엠오에 제공했다. 또한 전남농업기술원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수출마케팅 보드 사업지원을 통해 얻은 성과이기도 하다.

담양에 위치한 (주)오엠오는 갈색거저리를 주원료

로 건조밀원, 밀원분말, 밀원고구마, 스틱, 쌀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 원료인 갈색거저리는 전량 전남 곤충농가에서 제공받고 있다.

문의 곤충잠업연구소 김현진 연구사(061-399-1714)

JARES NEWS



전남농업기술원, 100kw급 영농형태양광 하부경지 벼 재배기술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보성군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100kw급 영농형태양광 시설에서 하부경지 벼 재배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공존하는 농업기술로 작물생산 수익 외 발전소득으로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전력량의 20%로 설정함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영농형태양광시설은 작년 6월에 공사비 약 2억 원 중 75%를 농업인 최초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받아 완공하였다. 영농형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업이 태양광발전의 기능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농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하여 태양광 하부경지에 적합한 작물 선정과 재배방법 개발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태양광하부에 시험 재배한 벼의 콤바인 수확 시연을 실시한 결과 농기계 운행에도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의 식량작물연구소 안규남 연구사(061-330-2524)



전남농업기술원, 겨울철 사료작물 적기 파종 당부

전남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풀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적기에 파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 풀사료는 제때 파종해야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탈리안라이그라스는 9월 하순 ~ 10월 상순에, 청보리는 파종 한계기인 11월 상순까지 파종을 마쳐야 한다.

파종이 10일 이상 늦어지면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며, 시기를 놓치다 경우 파종량을 30~50%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씨앗을 뿌린 후 눌러주기를 해주면 파종한 종자가 땅과 밀착이 잘 돼서 발아가 일정하고 겨울철 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눌러주기를 안한 곳 보다 수량이 15% 정도 늘어난다.

또한 청보리는 습해에 약해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습해로 인해 생장이 불량해져 생산량이 줄어든다. 아울러 논에서 입모종으로 이 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벼 수확 후 벼짚을 빨리 걷어내고 밑거름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문의 기술보급과 김덕룡 주무관(061-330-2792)

전남농업기술원, 유자 천연정유... 향장제품으로 효능 밝혀내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껍질에서 증류 추출한 천연 정유가 피부보습 및 항염, 항균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연구결과 밝혀냈다.

유자는 과육뿐만 아니라 과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혈관·피부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항염 효능이 있는 나린진과 헤스페리딘, 비타민 C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특유의 향이 풍부하여 차, 음료 및 향료 등 가공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으로 진도 유자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이 우수한 소재(정유, 천연분말, 올레오레진)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도의 관광단지와 연계한 체험용 입욕제품과 유자모양의 빵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유자 껍질 속 천연 정유 소재는 에센셜오일

로 사용할 수 있어 입욕제와 같은 향장제품에 이용하기 위해 피부에 대한 보습, 항염, 항균 효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선경 연구사(061-330-2514)



전남농업기술원, 전국 최고 잎들깨 생산 기반 마련!

전남농업기술원은 잎들깨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연시회를 광양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는 도내 잎들깨 재배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면포장기 활용 소포장 잎들깨 상품 제조, 세척기 및 향온향습기 등을 활용한 신선도 유지에 이어 품질향상과 에어샤워기 활용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잎들깨 재배규모는 육류 소비증대에 따른 쌈채소 소비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증가로 2015년 887ha에서 2019년 1,136ha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잎들깨는 잎을 일일이 묶어 비닐 포장해야 하는 포장작업에 노동력이 투입되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하우스 잎들깨 재배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자동포장기, 초음파세척기 등을 투입한 결과, 10a당 고용노동비는 29.5% 절감했고, 경영비도 18,00만 원에서 1,633만 6,000원으로 9.2%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연간 수확 횟수는 기존 55회에서 67회로 늘릴 수 있어 생산량은 5,832kg으로 23% 증가하였고, 소득은 3,751만 6,000원으로 4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자원경영과 김민현 연구사(061-330-2583)



전남농업기술원, 식용곤충 이용 '햄버거 패티' 개발 박차

전남농업기술원은 식용곤충을 이용한 대체육 개발에 나섰다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대규모 축산이 야기하는 환경파괴의 대안으로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할 대체육은 갈색거저리와 식물성단백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곤충을 첨가할 예정이다.

기존 대체육은 주로 식물성 단백질에 집중되어 메티오닌, 시스틴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나 오메가3 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어 동물성 원료를 통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를 이용하여 햄버거용 패티에 필요한 보조 재료와 글루텐 대용 재료를 선별하여 식감, 향미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갈색거저리를 포함한 햄버거용 '패티'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

문의 곤충잡영연구소 임윤지 연구사(061-399-1727)

전남농업기술원, 학생4-H LIVE 과제경진 성황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0월 8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9개교 12팀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라남도 학생4-H 과제경진'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은 4-H이념(지·덕·노·체) 확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갈 초·중·고 4-H 회원들이 1년 동안 연습한 과제(꿈과 끼 등)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경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발표자가 참가했으며 '라이브 전남농업방송'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학생 회원들은 자원봉사성과, 프로젝트 이수성과, 단체예능특기 등 3



종목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제활동 성과를 선보였다. 경진 결과 자원봉사성과는 완도 청산중학교, 4-H프로젝트 이수성과 함평 영화학교, 단체예능특기과제 경진에 영광 영산성지고등학교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는 전남을 대표해서 10월 31일 농촌

진흥청 주관 제14회 전국 학생4-H 과제경진에 전남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문의 농촌자원과 정현철 주무관(061-330-2742)

전남도 소식

전남도, 농축산물·관광상품 ‘판매 활성화’ 업무협약



전라남도과 구례군, 롯데홈쇼핑, (주)래오이경제가 10월 8일 전남 농축산물 및 관광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파트너사, 해당지역 생산자가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상품 판매에 협력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과 구례군은 구례 산수유, 한우 등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관광상품의 홍보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래오이경제는 지역 농산물인 산수유를 원료로 사용해 한의사 이경제 원장의 노하우를 집약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구례 산수유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 연매출 200억 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명품 인증을 받은 ‘지리산순한한우’를 롯데홈쇼핑에 런칭해 판매 확대한다. 더불어 11월 중 롯데홈쇼핑에서 구례곡성지역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순차적으로 목포, 신안, 장성 등 지역 대표 관광상품에 대한 판매계획도 세웠다.

문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20)

전남도 소식

전남도, 2021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국비 ‘전국 최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 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초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될 사업이다. 농촌 이주를 희망한 도시민의 임시 주거 공간조성과 농촌 정보제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는 6개월간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해소, 농업·농촌의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사업에 6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농업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문의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061-286-2840)

방방곡곡
떠나볼까?

남도 축제로 놀러오세요!

11월

11월 중 구례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

11월 중 보성 벌교꼬막&문학축제

11월 중 장성 백양단풍축제

11월 중 해남 해남미남(美南)축제

11월 중 해남 팜아트페스티벌

12월

12월 중 담양 산타축제

12월 중 보성 차밭빛축제

12월 중 순천 순천만정원 별빛축제

12월 31일 여수 향일암일출제

12월 31일 해남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

※ 축제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관광과 061. 286. 5261

직접 체험하는 좋은 교육

전남 농촌체험·교육농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지리산휴가

<http://shop.goodfarm.net/my515103>

힐링팜스테이, 바른먹거리체험,
농촌교육농장, 대붕*단감 판매 등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http://www.haenamstory.net>

전통장만들기체험, 우리음식
조리 체험, 된장·고추장·간장·
청국장·메주 판매 등



담양 다화림식물원

<http://www.dawhalim.com>

식물심기체험학습, 압화체험,
덧밭체험, 토피어리체험,
화분판매 등



장성 백련동 편백나무

<https://www.brdong.com>

산림청 연계 숲체험, 편백나무
비누·화장품·방향제·소품만들기,
편백정유 등 제품판매

